전주 대변혁 위한 시민 소통 이어간다

우범기 시장, 완산노인복지관서 완산동 주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실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범기 시장은 11일 완산노인복지관에서 완산동 자생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일정은 '2023 재보궐선거'로 인해 지난달 9일 송천2동 주민과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에 마련된 자리로, 우 시장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주시 35개 동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주 대변혁을 위해 전주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시·경제·문화·복지의 4대 분야의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범기 시장은 11일 완산노인복지관에서 완산동 자생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완산동은 전주의 구도심 교통의 요충지로 현재 △완산벙커1973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민선8기 전주시의 핵심사업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문화·역사·관광 분야 등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완산동 주민들은 이날 우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활용해 △완산동 빈집 처리 문제 △남부시장 가로변 및 천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쓰레기 적재 및 악취 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완산동 고도제한 해제 문제 등 전주와 완산동의 발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구도심이 개발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오늘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도 모아 완산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청 주변 노상주차장 생긴다

7월까지 노송광장로 일대 총 107면 조성 추진

전주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전주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오는 7월까지 노송광장로 일대의 노상주차장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청 주변은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거의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차량 통행에 의한 사고위험이 비교적 적은 시청 주변에 노상주차장 설치해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노상주차장은 노송광장로와 노송여울2길, 문화광장로에 총 107면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공 예정인 오는 7월까지 해당 구역별 공사기간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노송여울2길 노상주차장은 인근 상인과 거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청사 주변 외에도 향후 전북대 구정문(17면)과 대동로 공구거리(40면) 등에도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부족한 주차 수급 문제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청사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준공까지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완산구, 녹지환경 일제정비 나선다

완산구 녹지대 예초·제초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도심환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구는 단정하고 깨끗한 도심녹지 제공을 위한 도심 속 녹지환경 일제정비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도심 녹지 시설물 관련한 부지의 '잡초 제거, 풀깎기, 화단 정비' 등의 환경점검과 정비가 펼쳐진다.

'완산구 녹지대 예초·제초 유지관리사업'은 앞으로 3차에 거쳐(1차 4, 5월 2차 6, 7월 3차 9, 10월) 각각 진행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정하고 쾌적한 도심 속 경관을 연출하고 시민들의 참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 강화

등·하교 시간 교통 경찰 배치·교통 지도 활동 등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8일 60대 남자 A씨가 만취상태로 승용차 운전하다 대전시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걸어가던 초등생 4명을 치여(사망 1명, 중상 3명)의 사상자 4명이 발생된 사고다.

현재 가해자 A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지난 10일 구속 수사로 결정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며, 4월 7월까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약 1,600개소(누적)에 약 4,000명(누적) 가량의 교통 경찰 배치,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집중 했고,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도 약 500개소(누적)에 배치되어 교통안전 활동에 함께 했다.

또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약 200대 가량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병행했으며, 앞으로도 등·하교 시간대 위주, 가용 경력 최대 동원해 교통 지도 활동 지속 추진 예정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는 현재 85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약 160대 가량이 추가 설치, 운영될 예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집중 전개, 캠페인을 비롯한 플래카드 게첨, SNS 홍보, 서한문, 전단지, 전광판 홍보 등 각종 홍보 활동까지 병행하게 된다.

특히,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도내에서 만큼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아·태 마스터스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월부터 대회 종료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 열리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0,000명 이상의 선수와 동반인이 참가하는 대회로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회이다.

지난 11일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 대책의 일환으로 대회의 개회식이 열릴 예정인 전주월드컵경기장과 농구 경기가 펼쳐질 전주실내체육관을 찾았다.

현장을 찾은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경기장의 소방시설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출동로, 건물 배치 소방용수 현황, 주변 위험시설, 피난로 등 소방 활동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현장 대응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설 여건에 맞는 소방대책과 안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통해 대회를 찾은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전북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방서에서는 아·태 마스터스대회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선수단 숙소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덕진구 내 경기장 현지적응 소방훈련, 개회식장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대회 기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개·폐회식 행사장 임시119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과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자긍심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3년 동안 기록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시 부착과 동시에 소방특별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에서 받아 소방서에 직접 제출, 우편 접수, 팩스(063-220-4249)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소방안전 문화 공감대 형성과 민간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호구조과(063-220-424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